

‘미래를 위한 농업’ 이렇게 시작해 보자

위기는 곧 기회, 현실변화에 대한 적극·능동적 대응자세 필요
‘새로운 10년’ 경쟁력·자생력 제고 위해 중요, 위기엔 차분히 대응해야

2004년은 우리 농가의 가장 큰 소득원인 쌀 시장 추가 개방 협상 문제로 한차례 흥역을 치른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여전히 협상결과에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일단은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음으로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의 결과가 향후 10년간의 관세화유예로 결정되었다고 할 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이후 10여년간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10년 후 현재와 같은 위기감이 되풀이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 새로운 우려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인식·환경변화 급속 진행

사실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WTO체제와 같은 외적인 수입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과거의 관습을 답습하는 형태의 농업 으로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그 변화 속도나 정도는 현재에 비해 훨씬 빠르고 크게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WTO 도하라운드 농업협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국제식품규격기준(CODEX)·생명안전의정서·그린라운드 등에 의한 국제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의 지각변동, 향후 예상되고 있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의한 국내농업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해 볼때 농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서 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 강조, 안전식품의 지속적 공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문화가치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환경·생태계·환경보존에 대한 가치관 확산, 식생활과 식품소비자 욕구(Needs)의 다양화 및 식품소비성향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제한된 유통시장을 둘러싼 국내 산지간 동종 품목 및 대체품목간 경쟁의 심화, 유통형태 및 루트의 다원화 및 대형 소매업체의 시장주도기능 강화 양상,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강조, 소매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의 전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추적관리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등 식품안전성 대책의 강화 필요성 및 중요성의 대두, 새로운 소비문화의 확산과 온라인 시장의 급부상 등 농업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변화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인의 경영자적 인식전환 절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농정에 대한 올바른 이념과 방향 및 목표를 세우고 이것에 근거한 농정을 수립·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농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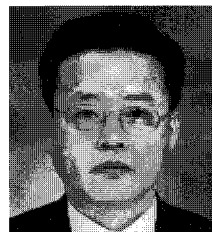
국민생활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농업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농촌지역사회의 다

양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정책의 목표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이 해야 할 역할과 다면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비조직적이고 정부의존적인 농업생산구조를 지양하고, 자생적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선 농민, 생산자단체, 지자체, 정부 간의 조직적 결합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민은 작은 힘을 뭉쳐서 조직적 규모화를 실현하고, 농협은 이를 조직적인 유통 사업으로 연계하여 농가소득의 향상 및 자생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규칙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농업 생산 및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지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농정 및 각종 제도와 지원사업의 시행을 시스템화를 통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리더에 의해 선진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 리더의 의욕 상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지역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다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비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



권 승 구
동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0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여년은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추진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위기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위기에 대비하느라 야단법석을 떨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다.



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화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농업 및 농촌의 활성화 그리고 농정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규칙 속에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최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통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개방 압력 하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지 않는 한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규칙 위에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야말로 생산자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농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업농체제하에서는 우선 농민들 스스로부터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조직, 유통, 판매 등을 총 망라한 경영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향후 10년 매우 중요, 위기엔 차분히

그러한 점에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의 변화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록 어렵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위기가 곧 기회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중국의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우리 농산물의 훌륭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수가 5%라고만 하더라도 이미 남한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엄청난 잠재적인 수요자, 소비자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즉, 판매자(생산자) 중심의 시대에서 구매자(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된 현실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경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합당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발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단해내고,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매진할 때만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을 확실하게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우리 농업 및 농촌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농민의 조직적 규모화를 시급히 추진·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중요성 증가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

산을 위한 노력, Traceability와 같은 구체적인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확산,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유통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별 분산적인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영세분산적인 구조하에서 조직화하지 못하고, 개별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결국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힘의 약화를 초래해 시장에서 농민의 가격교섭력이나 시장교섭력은 영원히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여년은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추진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 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위기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위기에 대비하느라 야단법석을 떨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한번 해보자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Y

